metro
메트로 2014년 3월 13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국민대통합 작은 실천부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작은실천 큰보람' 선포식을 마친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실천 덕목 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규범'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배려와 나눔의 덕목을 실천해나갈 때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열린 채용시대 면접방식도 '톡톡'

## 구직자가 묻고 요리·캠핑·합숙·미각 테스트

#사례 "야근이 많은 것 같은데 사내 분위기가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 보너스는 얼마나 나왔나요."

지난 8일 치러진 브랜드 컨설팅그룹 양유의 1차 면접에서 쏟아진 질문들이다. 4~5명의 면접관이 구직자 한두 명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반적인 면접과는 달리 서류전형을 통과한 200명의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인사 담당 임원 한 명에게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돼 뜨거운 열기가 2시간 넘게 이어졌을 정도다. 양유 관계자는 "이 같은 역발상 면접이 구직자들 사이에서 소문나면서 이번 공채에 무려 1800명이 넘게 지원했다"며 "지원자들의 진정성을 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 채용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면접 방식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역발상, 요리, 캠핑, 미각 테스트 등 기업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는 이색적인 면접 아이디어가 '스펙경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식품업체인 샘표는 구직자 4~5명이 한 팀을 이뤄 직접 재료와 요리 주제까지 정하는 '요리면접'을 올 상반기 공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마케팅 부서 지원자는 어떻게 요리를 판매할지, 연구팀 지원자는 요리법 개선 방안 등을 만들어진 음식과 함께 발표하는 방식이다.

김서인 샘표 인사팀 이사는 "음식을 만들고 발표를 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팀워크, 창의력 등을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어 성적·전공을 따지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시 중인 이랜드그룹은 1박2일의 합숙면접을 통해 시간을 두고 지원자를 평가한다. 조별로 미션 3~4가지를 주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는 방식이다.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맛을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미각 테스트를 실시한다. 소금물의 농도를 5단계로 구분해 진한 순서를 찾아내는 등 매년 출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하이트진로는 주류회사답게 '음주면접'을 통해 주도에 대한 이해와 인성을 점검한다. 주량과 상관없이 지원자들의 태도를 살핀다는 설명이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격**

채용에 앞서 임직원 1명과 구직자 5~10명이 팀을 이뤄 캠핑하면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다. CJ그룹은 '내일을 말하다 이웃도어 멘토링' 행사를 15일 진행한다. 취업 준비로 지친 구직자들이 탁 트인 야외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선배 사원들에게 값진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는 "스펙 초월 이 올 채용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색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난 점"이라며 "기업들이 이색 면접을 통해 구직자의 역사성과 열정, 남다른 경험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k@metroseoul.co.kr

## 강남 조폭형 택시기사들 입건

조직을 만들어 강남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손님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조직 이외의 택시 기사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조폭형' 택시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직폭력배 출신 신모(37)씨 등 3개 조직의 택시기사 2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손님을 태우려 한 경기 택시기사 민모(60)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10여명의 경기 택시기사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등이 2011년께부터 '강남 삼조파' 등 3개 조직을 결성해 강남역 지오다노 금강제화 뉴욕제과 골목을 각각 장악하고 손님을 독점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해 강남역 골목에서 택시 서울을 끈 채 주정차하면서 승차 거부 신고를 피하고, 조직 회원들끼리는 순번을 정해 3만~5만원을 받고 장거리 승객만 태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택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협박·폭행하기도 했다"며 "이들을 검거한 이후 심야에 강남대로 교통이 훨씬 원활해졌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천안함 용사 임재엽을 기리며** 천안함 46용사 가운데 한 명인 고 임재엽 중사가 고인의 모교인 대전 중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됐다. 제막식 참석자들이 흉상 가림막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론 뭇매로 '성추행 강의' 무산

**기자 수첩**
윤다혜 (정치사회부 기자)

여론이 무섭기는 무서웠던 모양이다.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강의를 계속해 논란이 된 공주대 교수 2명이 12일 직위 해제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와 그 피해 여학생이 다시 강의실에서 만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수들이 법원 선고 전에 이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다시 징계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공주대 교수 2명은 전공과목을 개설했고, 피해 여학생들은 졸업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성폭력 피해 여학생들에게 가혹한 상황이 지속되자 각종 매체가 이를 비판하며 여론이 들끓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하던 공주대는 결국 이날 주요 보직자 회의를 열고 피해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수 2명을 직위 해제했다. 공주대는 해당 교수들이 맡던 수업을 강사로 대체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음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한 교수가 여제자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울대 측은 해당 교수의 교육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 검찰 국정원협조자 김씨 체포

###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는 참고인 조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김씨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이후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요원인 김모 과장으로부터 유우성씨 측 변호인단의 증거를 반박할 문서를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중국에서 문서를 위조했다"며 "국정원도 위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소속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와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34)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나는 간첩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1년 넘게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책에 잘 전달되길'** 12일 오전 [illegible] 중구 [illegible]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원봉사자들이 [illegible]를 실은 컨테이너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 밀가루 [illegible] 200t은 북한 남포시 대안군 지역 탁아소·유아원, 학교의 영유아·아동과 임산부, 산모를 중심으로 분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대북 비방·중상 "사실 아니다"

북한이 우리 측에 대북 비방·중상을 중단하라고 다시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소모적 논쟁에 매달리지 마라"고 반박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2일 "사실과 다르게 우리 측이 비방·중상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서 할말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우리 당국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헌법으로 표현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런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illegible]

### 안행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강 후보자는 1978년 내무부 사무관을 거쳐 대구행정부지사, 지방행정국장, 소청심사위원장, 행안부 제2차관 등을 역임했다.

### 여의도역 등 862곳 금연구역으로

● 서울 영등포구는 국회대로와 여의도역을 포함한 86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곳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483곳 ▲초·중·고교 앞 43곳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303곳 ▲소공원 29곳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 위안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관련 기록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조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국내와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내년 등재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기조연설에서 "여성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2017년까지 40%로 올린다는 게 한국 정부의 계획"이라며 "한국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용률을 현재의 53.9%에서 61.9%로 확대하는 방안을 역점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mkim@

# 24일 집단 휴진 전공의 속속 참여

### 서울대·아산병원도 동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도 의료계 총파업 대열에 합류한다. 두 병원 전공의 측은 오는 24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2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서울대병원은 11일 실시한 2차 휴진 참여 찬반 투표에 총 전공의 1021명 중 944명(92.5%)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845표(89.5%), 반대 33표(3.5%)로 2차 휴진 참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도 같은 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한 전공의는 "의협의 대정부 요구 사항인 원격진료 및 의료 영리화 정책 반대 등을 지지한다. 의사의 양심에 따른 진료가 보장되고 의료 정책 결정에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이 될 때까지 투쟁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까지 휴진 참여가 결정되면서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빅 5 병원 전공의들 모두가 24일부터 시작될 2차 휴진에 참여하게 됐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 지역 개발 주민·지자체가 주도한다

## 그린벨트 용도 제한도 대폭 완화키로

정부가 이끄는 하향식 지역 개발 방식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 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군 단위에는 우선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구현하기로 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구·생활권 특성 등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작년 7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이후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계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했다.

이들 생활권은 산단 조성 등 지역산업 육성(636건)과 도시재생 등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561건), 기초 생활 인프라 구축(445건) 등 총 2146건의 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정부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도 단위에서 추진 중인 특화 발전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기획, 기업유치 등을 맡고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을 쓸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 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 지역, 공장 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1530㎢에 달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 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 입지 공급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 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해 내년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만들기로 했다. 투자 유발 효과는 2조4000억원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개발을 지역 주도로 바꾼 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이 제안한 발전 전략에 재정과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psc9920@metroseoul.co.kr

정부가 지역 경제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입지 규제최소지구 도입에 이어 12일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2017년까지 약 2조4000억원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뉴시스

# 투자선도지구 인허가 한번에

## 부담금 감면 저리자금 지원

정부가 지역 발전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 도심 및 외곽 지역 자연 보존 방침에서 개발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입지규제최소지구' 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12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했다.

입지규제최소지구와 투자선도지구는 기본적으로 건축 규제의 완화라는 큰 개념은 같지만 대상 지역과 세제·금융 지원 부문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역이나 터미널과 같은 기존 도심 지역이 대상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 규제 등이 완화된다.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식이다.

이에 반해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에서 더 나아가 사업 시행사나 입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저리 대출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기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현재 5개로 나뉜 지역 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할 방침이다. 해당 지구로 선정되면 지금까지는 법률에 따라 65개 인허가를 따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법인세 외에도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포함한 7종류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도 있고, 시중은행을 이용할 때는 정부가 입주 기업을 보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지구는 기존 도심 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선도지구는 신규 개발 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며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오는 2017년까지 14개를 지정하면 약 2조4000억원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노인 상대 '떴다방' 28곳 적발

### 19만원짜리 홍삼음료를 무려 73만원에 팔아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 등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28곳을 적발해 이들에게 행정 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노인 중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1059명을 시니어 감시단으로 선발해 현장에 사전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달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특히 강원도 강릉에서 한 업체는 무료 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후 사람들에게 19만원인 홍삼 음료를 73만원에 판매했으며 충북 충주시의 한 업체는 화장지나 생활용품 등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8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2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인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주유기 조작 일당 검거** 주유량 조작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2일 주유 시 실제보다 3~5% 적게 들어가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위기가정 지원대책본부 만든다

서울시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직권조사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위기가정 발굴 지원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기초생활수급 탈락, 공과금 체납, 주거 취약 가구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구청별로 '위기가정발굴추진반'을 신설해 사회복지사, 공무원, 간호사가 위기 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복지상담사 260명은 총괄해 시와 산하 25개 구청에 10명씩 배치해 현장에 출동하고 지원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363명과 보조 인력 423명도 증원된다.

시는 집배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택배기사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기존 2023명에서 올해 5000명, 2016년 1만 명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 사정에 밝은 통·반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는 '복지 통반장'도 모든 구청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2018년까지 서울형 기초 보장 신청 가구의 소득 기준을 최저 생계비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목표 시기를 2016년으로 앞당겼다. 올해는 소득 기준이 80%까지 완화돼 위기 가정 발굴 목표도 3만7000가구에서 4만 가구로 늘어난다. /김현정기자 mykim@

### 초등교 정의적능력평가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모든 초등학교 1137곳에 '초등학교 정의적 능력 평가' 자료를 제공했다.

자료는 도내 초등교사 110여 명과 함께 개발했으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예상되는 학생 반응하는 ▲학생 성장을 위한 교사의 피드백 활동 ▲서로 재구성할 수 있는 참고 자료 등을 담았다. 학교는 도교육청의 예시 자료를 재구성해 정의적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산재보험 체험수기 공모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체험수기 공모전'을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A4용지 2~3매 내외 분량의 산문 형식으로 수기를 작성해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 주제는 산재보험 혜택에 관련된 수기로,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입선 10명을 선정한다.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이 '엄마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엄마손 캠페인은 2002년부터 매년 3월 신학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어린이 보행 안전 캠페인이다. /연합뉴스

## 청계천 생태하천 만들기 나선다

청계천을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고 보행자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서울시는 12일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건의한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안'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명래 청계천위원회 위원장은 "청계고가를 뜯어내고 복원한 청계천은 도심 속 물길로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았지만 직선형 수로에 전기로 한강 물을 끌어다 흘려보내는 복원 운영 방식 탓에 '콘크리트 어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청계천이 스스로 생태 하천으로 연결되도록 물길을 가능한 한 곡선화하고 보를 철거해 자연스러운 하천을 조성할 것을 시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청계천 길에 설치된 보 2개를 철거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이 가운데 한양여대 앞 보는 5월까지 살곶이공원 앞 보는 내년 말까지 철거된다.

위원회는 수심 유지를 위해 설치한 '어울보' 28곳을 지그재그 형태로 바꿔 물 흐름 정체로 생기는 수질 악화 현상을 개선하고, 청계천 보도 폭을 넓히고 횡단보도를 개선하는 등 보행자 중심 거리를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또 수표교를 제 위치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민준기자 mjk@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미국 여성 참정권 이끈 수전 앤서니 사망**

1906년 3월 13일 미국의 사회개혁가 수전 앤서니가 8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매사추세츠의 개방적인 퀘이커교도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감치 인권운동에 눈을 뜬 그녀는 미국여성평등협회를 결성하며 노예제 폐지와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다. 제18대 미국 대통령 선거일에 여성으로서 불법 투표를 강행, 체포된 뒤 남성의 고발로 기소돼 1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그녀는 각 도시를 돌며 "여성도 사람입니까?"라는 계몽 연설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사망 후 14년이 지난 1920년에야 결실을 맺어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는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됐다.

### 모범음식점 5천만원 융자

서울시 금천구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점의 위생 관리 및 업소시설 개선 시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연중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은 시설 개선과 메뉴 개발 등의 소요 비용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 발달장애청소년 자립 지원

서울시 관악구가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직업 역량 교육생과 후 교육·재활학교·특수체육 수영교실·장애인 가족을 위한 힐링캠프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직업 훈련과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 원스톱 보건민원행정 실시

서울시 용산구 보건소가 '구민 맞춤형 원스톱 보건 민원 행정'을 실시,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구 보건소는 지상 1층에 있었던 1차 진료실을 지하 1층으로 이전해 이동 동선을 최소화했다. 또 지하 1층에 있던 대사증후군 관리센터의 영양상담실은 지상 1층으로 재배치하고, 민원실도 추가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통신 끊긴 채 500km 비행 추정

## 말레이시아 여객기 행방 미궁속으로

지난 8일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행방이 미궁 속에 빠진 가운데 사고기가 통신 기기와 추적장치를 끈 상태로 항로를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여객기가 항공관제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기내 통신기기와 추적장치 등을 모두 끈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비행했다는 말레이시아군 당국의 분석이 공개됐다. 군 당국의 분석 결과가 정확하다면 실종 여객기는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기수를 서쪽으로 돌려 말라카해협까지 약 500㎞를 비행한 것이다.

그러나 로잘리 다우드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은 사고기가 말라카해협까지 도달했다는 발언을 부인해 혼선을 빚었다. 그는 "군 레이더가 말라카해협에서 여객기를 발견한 적이 없다"면서 "사고기의 회항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실종 여객기 조종사의 자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부조종사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공개되면서 여객기 사고를 둘러싼 각종 소문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항공행 관리는 사고 당시 기내 이상을 알리는 무선 송신이 전혀 없었다며 조종사의 자살 가능성을 거론했다.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여전히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고기 송수신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조종사의 자살 가능성 등 어떠한 가설도 평가절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고기의 부기장이 과거 비행 도중 여자 승객을 조종석으로 초대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호주 여성은 11일 현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출연, "2011년 여자친구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승무원이 다가오더니 우리를 조종석으로 초대했다. 푸켓에서 쿠알라룸푸르로 비행하는 1시간 동안 조종석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은 사고기 항로의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아무런 잔해도 발견하지 못했다.

/조선미기자 @metroseoul.co.kr

## 태양열 이용 무료로 휴대폰 충전

metro Peru

페루 수도 리마에 위치한 아비에르 프라도 병원. 휴대전화를 움켜쥔 사람들이 다급하게 병원으로 뛰어 들어간다. 병원에서 전화도 고쳐주는 것일까.

메트로 리마에 따르면 최근 이 병원에 공공 휴대전화 충전기가 설치돼 '죽은' 배터리를 '살리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병원에 설치된 충전기는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충전 비용은 무료다. 기둥 모양의 충전기는 맨 위에 세 개의 태양광 패널을 달고 있다. 여기서 변환된 에너지는 바로 밑에 있는 리튬 전지에 저장, 해가 뜨지 않은 날에도 축적된 에너지를 이용해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Energía solar para recargar celulares

충전기 개발업체 대표인 클라우디오 카스티요는 "배터리가 방전돼 급히 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제품"이라면서 "서비스 비용은 받지 않는다. 운영 비용은 충전기 기둥에 게재하는 광고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 파리 도심 쓰레기 배출량 줄어

metro France

파리 도심에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했다.

지역폐기물관측소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1인당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472kg으로 이는 2011년보다 8kg 줄어든 것이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파리 지역의 시민들은 1인당 34kg에 달하는 쓰레기를 줄여왔다.

이에 대해 파리시는 좋은 정책들이 이끌어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환경학자 코린느 루페는 "이번 통계를 통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서로 연계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앙상 작셀록 기자·정리=한진리 인턴기자

**근시 예방 특수책상 수업** 10일(현지시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근시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특수 책상에 앉아 수업을 받고 있다. 책상에 설치된 금속 장치는 학생의 눈과 책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중국의 근시 발병률은 33%로, 근시 인구가 4억 명에 달한다. 세계에서 근시 인구가 가장 많다. /신화 연합뉴스

## 신 만능세포 연구 논문표절 의혹

### 日 아사히신문 보도

치매와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일본의 신만능세포 연구를 둘러싸고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논문의 공동 저자가 직접 논문 철회를 요청한 데 이어 연구팀장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돼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명 '만능세포'로 불리는 자극야기다능성획득(STAP) 세포 개발을 주도한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 종합연구센터 오보카타 하루코(30·여) 연구주임의 박사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고 12일 보도했다.

오보카타 주임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일본 와세다대학에 제출한 108쪽 분량의 논문에서 간세포 연구의 의의와 배경을 설명하는 26쪽 가운데 무려 20쪽가량이 '간세포의 기초'라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웹사이트의 내용과 거의 같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부분에는 인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어 인터넷에 있는 문장을 컴퓨터의 '복사해 붙이기' 기능으로 끌어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이 성장 전략의 메뉴로 지목한 STAP 세포 연구가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선준기자

## UFO 목격 신고 1180건

지난해 캐나다에서 미확인비행물체(UFO)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총 1180건으로 집계됐다.

미 CBC 방송에 따르면 '매니토바 UFO연구소'는 11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UFO 목격 신고 건수가 지난 25년 사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UFO 목격 신고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2년이다. 당시 마야 달력에 따른 '지구 종말론'이 확산하면서 약 2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비밀 군사훈련과 고도 비행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하늘'에 도움을 바라는 심리가 커진 것도 UFO 목격 횟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market index** <12일>

| 코스피 | 코스닥 |
|---|---|
| 1932.54 | 539.50 |
| 금리 | 환율 |
| 2.87 | 1071.70 |

## 휴대폰 소액결제 '일반-자동' 선택 가능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가입자가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반 결제'만 사용할 지 '자동 결제'도 가능하게 할지 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방안 도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4만 명이 성인 사이트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휴대전화 자동 결제 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근절을 위해 이 같은 정책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현재 이동통신사, 콘텐츠 사업자, 결제 대행업자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와 자동결제 가능 여부 설정은 휴대전화 가입 단계에서 하거나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상범기자

# 뻥 뻥 터지는 '대포통장'…연 700억 샌다

## 피싱·대출사기 등 금융범죄 악용…한해 5만명 명의 도용 피해

# 대학생 강모씨는 인터넷으로 접한 고소득 재택 아르바이트 광고 업자에게 일을 구할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을 넘겨줬다가 큰 코다쳤다.

이 업자가 강씨의 명의로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각종 불법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발각됐는데 강씨의 명의인 탓에 경찰에 들락날락하며 조사를 받는 통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강씨는 "돈 몇 푼을 벌려다 경찰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됐다"며 "대학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는커녕 일상생활이 모두 망가졌다"고 탄을 쳤다.

대포통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약 5만 명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싱·대출사기 등의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지식이 낮은 고령층에 접근해 소정의 대가를 주고 예금통장 계좌를 넘겨받거나 노숙자·지적장애인 등을 도와준다며 계좌 개설에 동행하는 경우도 대포통장 발급 의심 사례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 범죄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개, 피해액은 71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사용자가 달라 금융 경로의 추적을 피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비정상적 통장이나 카드를 말한다. 각종 금융 범죄의 숙주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발급된 대포통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어갈 경우 제2·제3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는 유용한 불법적인 금융시장은 날로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10~20원에 거래되는 데 반해 대포통장의 경우 통장만 거래하면 30만원, 통장과 현금카드를 합치면 50만원, 여기에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더하면 80만원 등의 유통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지난해 예금통장 매매업자 200곳을 적발해 경찰과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 감독을 강화하면서 대포통장 발급이 시중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두드러졌다.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과 농협단위조합은 지난해 상반기 총 68%(23.5%, 44.5%)에서 같은 해 하반기 61.1%(20.8%, 40.3%)로 줄어들었다.

신한은행은 이 기간 3.9%에서 2.9%로 감소했고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11.2%, 3.8%에서 2.1%, 0.6%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 기간 2.4%에서 8.6%로 3배 넘게 늘었고 우체국은 1.5%에서 14.9%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정밀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포통장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기존 피싱사기에만 적용되던 환급제도를 대출을 빙자한 수수료 갈취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khj@metroseoul.co.kr

**연금복권520 제141회**

| 등위 | 당첨금 | 당첨번호 | |
|---|---|---|---|
| 1등 | 월 500만원×20년 | 3조 | 524716 |
| | | 7조 | 741305 |
| 2등 | 1억원 | 1등의 전후 번호 | |
| 3등 | 1000만원 | 각조 | 264519 |
| 4등 | 100만원 | 각조 | 33619 |
| 5등 | 2만원 | 각조 | 437 |
| 6등 | 2000원 | 각조 | 38, 77 |
| 7등 | 1000원 | 각조 | 2, 3 |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 | |
|---|---|
| 발행인 세한 | 남균호 |
| 사장 편집인 | 김용학 |
| 편집국장 | 조인호 |
| 서울광고문의 | (02)721-9851~3 |
| 부산광고문의 | (051)-658-7100 |
| 독자센터 | (02)721-9111 |



**금빛 찾아가는 금값** 국제 금 가격이 지난해 10월 말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12일 서울 종로 한국금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골드바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30분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4월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트로이온스당 10.6달러(0.82%) 상승한 1357.70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금값은 3.75g(1돈)당 18만4000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3000억 대출 비리' KT ENS 법정관리

## 만기도래한 CP 491억 상환 못해 회생 신청

3000억원 대출사기 사건에 소속 직원이 연루돼 곤욕을 치른 KT ENS가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자회사인 KT ENS는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기업어음(CP) 491억원의 보증 요청 대응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KT ENS 김모(51) 부장은 협력업체 직원과 가짜 매출 채권을 만들어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으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받아 해외로 잠적했다. 이 사건으로 KT ENS는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자 PF의 CP 491억원은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이 상환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KT ENS가 자금 보증을 하게 돼 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고 KT ENS는 대응할 자금력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택했다.

KT ENS 측은 "3000억원대 금융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했지만 KT ENS는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한 달여 기간 동안 새로 도래한 기업어음 상환은 불능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일각에서는 KT ENS가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강석 KT ENS 대표이사는 "기업어음 상환 규모가 커서 모회사 KT에는 별도의 지급 지원을 요청할 수 없었다"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해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정윤희기자 unique@

## 2월 신규 취업자 83만5000명 늘어 12년래 최다 증가

지난 2월 취업자 규모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1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의 훈풍을 이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48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5000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가 70만5000명 늘면서 2002년 3월 84만2000명 증가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데 이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 26만5000명으로 확대됐고 이후 11월(58만8000명)과 12월(56만 명)에는 두 달 연속 50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실업자수는 11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9000명(19.1%) 증가했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은 것은 2012년 2월 이후 2년 만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같은 달의 9.1%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 1월(11.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유주영기자 boa@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 우리·기업銀도 '도쿄 지점=비자금 지점'

## 부실대출·거액 송금 등 국민은행 사건과 유사 금감원, 개인 비리 아닌 조직적인 관행 '의심'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도 연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 문제인지 관행으로 굳어진 조직적 비자금 조성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자금 흐름의 특성과 계속적으로 비슷한 사안이 적발된 점을 들어 개인 비리보다는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기업은행의 도쿄지점 직원 가운데 일부가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유입된 자금의 비자금 활용 여부와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온 금액은 최대 6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다만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 해당 자금이 불법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별 자체 점검 과정에서 도쿄지점에 각각 600억원대, 130억원대의 부실 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했다.

당시 두 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도쿄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관계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번 사건에 관련된 직원이 국내에서 빌딩을 산 것으로 알려져 관행에 따른 비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계에서는 은행의 비자금 조성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의 관계자는 "언제부터인지 은행들의 자금 관리가 흐트러지고 있다. 금융 환경 악화로 명예퇴직 같은 악재가 많이 터지자 한탕주의 의식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경영진의 비도덕적인 경영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장들이 먼저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마당에 아래 부하 직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계에서는 최근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이 정황상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이고 이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비슷한 사태가 각기 다른 은행에서 연달아 터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은행들은 이 문제가 비자금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관계자는 "개인이 저지른 비리일 뿐이다. 비자금 조성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이 사건은 금융 당국의 소관이 아닌 사법부 소관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횡령 같은 범죄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상황이 다급해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관계자들은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금감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사고를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은행의 해외 점포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은행의 자율적인 상시 점검 강화와 보고시 제출 의무화, 현지 직원 교육 등을 강화키로 했다.

/백아란·박정원기자 pssh@metroseoul.co.kr

## 증권사 임직원에 가족계좌 정리 '경고'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이 가족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몰래 주식 투자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리하는 기간을 부여할 방침을 정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다른 증권사에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일정 기한 내 정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처럼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하며 분기별로 회사 내부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들의 비밀계좌 자체 정리를 독려하고 불공정 거래나 불건전 매매를 사전에 방지하는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증권사 임직원이 몰래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거래하다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국증권의 한 임원은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과 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회사돈에 손을 댔다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자체 정리 기간을 준 만큼 향후 적발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임직원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개인은 별도로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정기자 hjk@

**식기세트에도 '천송이 열풍'** 1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휘슬러 매장에서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 스페셜 에디션을 직원들이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커플 머그세트 5만9000원, 천송이 커플세트 11만9000원, 천송이 쥬얼리세트 33만원이다. /연합뉴스



## 연준 '테이퍼링 엑셀' 밟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프랑스 중앙은행이 개최한 파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테이퍼링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서 총재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의결권 행사 멤버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8~19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욱이 증시 과열과 거품에 대한 우려도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빨라지게 할 전망이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S&P500지수는 지난 2009년 3월 9일 미 증시가 저점을 찍은 이후 5년여 만에 178% 급등했다. 나스닥지수와 다우지수는 같은 기간에 각각 242%, 151% 상승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3월 FOMC 정례회의 때 추가 테이퍼링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향후 테이퍼링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양적완화 종료 시점은 올 연말보다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인정기자 mkn@

# 오늘부터 KT·LG유플 가입 못한다

## 2개사씩 '45일 사업정지' 제재기간 과열 줄듯…SKT 다음달 5일부터

13일부터 시작되는 이동통신사의 사업정지(영업정지) 시작을 앞두고 통신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 3사에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12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4월 4일까지 LG유플러스와 KT, 4월 5일부터 26일까지 SK텔레콤과 KT,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5월 19일에는 SK텔레콤만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보다 기간이 길고 2개 통신사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부는 2개 통신사씩 영업정지를 하면 남은 한 곳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이용자 뺏기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방식을 취했다.

한 시민이 '영업정지 전 마지막 보조금 70만원 지원'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대리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 시장 과열 조장으로 인한 제재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손진영기자 son@

이에 대해 KT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2개사가 동시에 영업정지되면 이전보다 과열 현상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영업정지보다 사업정지란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통신업계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가 시행됐지만 은례 더 큰 규모로 되풀이됐다"면서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해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래부가 향후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행위 적발 시 과징금만큼 요금제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건전한 통신 시장 조성을 위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계기로 통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길 기대한다"며 "통신 관련 업계 피해는 최소화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본잔 이통 3사의 분위기와 달리 일선 휴대전화 업계 종사자들은 들끓고 있다.

한 휴대전화 대리점주는 "이통사에 영업정지는 마케팅비를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일선 영세 종사자에게는 개점 휴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13일 오후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이동사 영업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 바뀌는 '보조금 징계' 통신요금 감면 추진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이 불법 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일정 기간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조사·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선 이통 3사 영업정지 조치는 오히려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줄이는 데만 도움을 줄 뿐이라며 피해는 휴대전화 중소 제조사와 영업점이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지난 4일 "이통 3사가 피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통신요금 인하나 과징금 부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국민의 불편 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화영기자

'별에서 온' 신선함 맛보는 전지현 윤부근(왼쪽 셋째) 삼성전자 생활가전(CE)부문 사장과 배우 전지현(왼쪽 둘째), 이번 '셰프컬렉션' 기획 개발에 함께 참여한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전자 셰프컬렉션 미디어데이' 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 미슐랭 3스타 요리사가 만든 냉장고

## 삼성전자 '셰프컬렉션' 미디어데이…"열풍 조짐"

"프로페셔널 디자인, 슈퍼 프리미엄 등 3가지 단어로 요약되는 '셰프컬렉션'을 앞세워 2015년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전체 매출 1위를 자질 없이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부근 삼성전자 생활가전(CE)부문 사장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전자 셰프컬렉션 미디어데이'에서 슈퍼 프리미엄 셰프컬렉션 냉장고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의 셰프컬렉션은 삼성 키친 가전의 소프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클럽 드 셰프(Club Des Chef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완성됐다. 미셸 트로와그로, 에릭 트로숑, 크리스토퍼 코스토프, 에릭 프레숑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슐랭 3스타 셰프들과 공동 기획·개발해 요리의 맛과 향,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신선한 재료라는 철학을 반영해 재료 궁극의 신선함을 새로운 맛으로 제공하는 전문 푸드 케어 냉장고로 탄생시켰다.

윤 사장은 "냉장고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한 3대 제품 중 하나로 오래도록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 냉장고가 정온성이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삶과 건강한 맛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들어진 제품이 이번 셰프컬렉션 냉장고"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사장은 "지난해 우리 생활가전 부문이 글로벌 시장보다 3배 이상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글로벌 가전에서 전체 매출 1위를 자질 없이 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셰프컬렉션의 조기 반응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박종각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팀 전무는 "셰프컬렉션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유통 시장에 진시하기 시작했는데 4~5일 만에 120대가 판매됐다"며 "향후 전체 가전 시장에서 셰프컬렉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기자 ilyoi03@

반려동물 쥐어 봤자 내 손안

SK텔레콤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반려동물 실종 방지 위치 추적 솔루션 '지브로(ZB)'를 12일 출시했다. 지브로 외장형 목걸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제 기준 규격 제품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 제공

### 방전걱정 없이 영상저장 블랙박스 프로비아 출시

블랙박스 전문기업 에이치디비젼보통신이 방전 걱정 없이 장기간 주차 영상을 저장해주는 '프로비아 PL 5000'(사진)을 12일 선보였다.

3.5인치 풀터치 LCD를 채용한 이 제품은 저전력 설계를 통해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주차 녹화 모드에서도 장시간 녹화 영상을 보존할 수 있다. 또 디지털 온도 센서를 탑재해 고온으로 인한 부품의 결함 발생과 화재 위험을 방지해준다.

블랙박스 부팅 시간도 10초 이내에 불과하다.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편리하다. 일반 텍스트 형식의 파일 목록이 아닌 미리 보기 형식의 섬네일 기능을 적용해 사고 영상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비아 홈페이지(www.provia.c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국희기자 kim@

### LG패션 'LF'로 사명 변경

LG패션이 사명을 LF로 변경한다.

LG패션은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사명 변경 안건을 최종 확정 짓고 다음달 1일부터 LF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12일 밝혔다.

LF는 '미래 속 삶(Life in Future)'의 약자다. 공식 상호는 주식회사 LF이며 한글로는 주식회사 엘에프, 영문으로는 LF Corp.를 사용하게 된다.

LG패션은 사명에 '패션'이란 단어를 지움으로써 단순히 옷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생활문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방침이다.

2007년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LG패션은 당시 연간 매출 7000억원대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두 배 성장했다. /장윤희기자

# 유럽 스포츠 세단 나와!

**BMW 첫 모터사이클 감성 부활** BMW모토라드코리아가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플래툰 쿤스트할레에서 'BMW 뉴 R 나인 T'를 선보이고 있다. 'BMW 뉴 R 나인 T'는 1923년 선보인 BMW 최초의 모터사이클 R32를 기념한 모델로 전통적인 공랭식 박서 엔진에 복고풍 디자인을 더해 클래식 감성을 자아냈다. /연합뉴스

## 시승기-인피니티 Q50

스포츠 세단은 수입차에 입문하는 30~40대 오너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차종이다. 이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솔린 모델이 인기를 끌었으나 몇 년 전부터 디젤 모델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BMW 320d, 메르세데스 벤츠 C220d, 아우디 A4 TDI 등이 그런 모델들이다.

이런 독일차의 강세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브랜드는 디젤 라인업이 약한 일본차다.

인피니티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해 G시리즈의 후속 모델인 Q50에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더했다. 북미를 비롯해 해외에는 2.0 가솔린 터보도 출시되지만 한국에는 우선 디젤과 하이브리드만 나온다.

10일 인천 잭니클라우스 클럽에서 열린 시승회는 디젤 모델 중심으로 이뤄졌다. 디젤 모델이 판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도 하지만, 인피니티로서는 벤츠와 협업에 의해 장착한 디젤 모델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2.2d 모델에 얹은 엔진은 벤츠 C220d에 얹은 엔진과 같다. 최고 출력은 170마력이고, 최대 토크 40.8kg·m는 1600~2800rpm에서 발휘된다. 엔진이 같은 만큼 공회전 때의 소음은 비슷하다. 중저속에서 약간 거친 음을 내놓고 살짝 무거운 움직임 또한 닮았다. 공차 중량이 1725kg으로 다소 무거운 탓도 있다.

대신 가속 때의 반응은 C220d보다 공격적이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약간의 터보 랙 이후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실력을 발휘한다.

지난 10일 도로를 질주하는 Q50 시승차와 그 내부 모습(작은 사진)

## 속 시원한 디젤·민첩한 하이브리드 매력 '씽씽'

탄력을 받은 이후의 가속은 머뭇거림이 없고 속 시원하다. 7단 자동변속기와의 매칭도 좋다. 디젤 엔진 고유의 특성상 4500rpm 이상을 활용하기는 힘들지만 2000~3000rpm 사이의 반응이 매우 활발하고 재빠르다.

이어서 만난 하이브리드 모델은 느낌이 정반대였다. 디젤 모델의 소음과 진동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저속에서 유령처럼 스르륵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가속 반응은 기대를 뛰어넘는다. 지금까지 타본 동급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강렬한 가속 감각이다. 연비를 위해 배기량 작은 엔진과 모터를 조합하는 일반적인 공식에서 벗어나 파워풀한 조합을 이룬 덕분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장착되는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DAS)이 더해져 민첩하고 정확한 핸들링을 완성한다.

Q50의 가격은 2.2d 프리미엄이 4350만원, 익스클루시브가 4890만원이고, 3.5h 하이브리드는 6760만원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비싸 보이지만 타 브랜드에 비하면 경쟁력이 있다. BMW의 액티브 하이브리드3는 8560만원으로 1800만원이 더 비싸지만 성능이나 연비는 Q50 하이브리드와 엇비슷하다. 게다가 차선 이탈을 바로잡는 액티브 레인 컨트롤이나 앞차와의 추돌을 막아주는 전방 추돌 예측 경고 시스템 등 경쟁차에 없는 다양한 신기술도 Q50의 강점이다.

Q50은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춤으로써 연비와 파워 두 가지 모두 돋보이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여기에 가솔린 터보 모델까지 가세한다면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와 해볼 만한 승부가 될 것이다.

/[illegible]기자 ferrari@metroseoul.co.kr

# 국산차 '삼박자 기지개'

### 2월 생산·내수·수출 전년대비 모두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자동차 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영업 일수 증가 및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생산·내수·수출 면에서 모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생산은 조업 일수가 증가하고 내수와 수출호조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한 35만 9148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신차 효과, RV 수요 확대 등으로 10.6% 증가한 12만1757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다.

중형 시장 부진에도 대형(제네시스·그랜저)과 SUV(싼타페·쏘울·코란도)를 중심으로 각각 25.9%, 31%로 호조세를 시현했다. 수출은 RV 신모델(쏘울) 수출 확대, 국산차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으로 전년 동월 비 5.8% 증가한 24만8721대를 기록했다.

향후 내수는 지난 201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향후 중형 및 RV 차량의 신차 출시가 예정돼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2월 생산은 현대·기아는 제네시스 신차 효과 및 수출 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6%, 27.3% 증가했다.

한국지엠은 유럽 쉐보레 철수 계획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4분의 1 감소했다. 르노삼성은 수출물량 감소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쌍용은 수출 호조로 23.0% 증가했다. /유주영기자 boa@

# 인도, 'IT허브'로만 보지마

## 고소득 외국인 늘면서 고급 요리시장 커져…'미식가의 나라' 떠올라

### 글로벌 이코노미

'미식가의 나라' 프랑스는 옛말이 될지도 모른다. 글로벌 IT 허브 인도에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이 새로운 미식가의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송로버섯과 훈제 연어, 최상품 올리브유와 요크셔 푸딩….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인도에서 새로운 축을 형성한 '귀족 음식'에 대해 소개했다. 과거 인도에서는 현지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 음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새 인도 주요 도시에서는 외국인 수가 급증, 고급 요리와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뉴델리에서 식재료 업체를 운영하는 프랑스인 로저 랭보. 그는 스테이크의 육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년 전 동물 농장을 직접 차려 완벽한 고기를 제공하는 별난 외국인이다.

랭보는 과거 베이징 오리와 칠면조 등을 수입해 5성급 호텔과 고급 식당에 공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는 소수의 미식가를 위해 식재료를 판매했지만 현재는 인도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상대로 고기와 채소 등을 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뉴델리의 한 상점에 진열된 파프리카와 아스파라거스. /BBC 제공

그의 상점은 현재 뉴델리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고급 식재료 판매업체 중 하나다. 뉴델리에서 58㎞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농장에는 오리와 닭, 돼지가 수백 마리 있다. 동물들은 농장 곳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닌다. 쫄깃한 육질을 위해 방목형으로 길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농장에는 타임과 민트를 비롯한 허브와 인도에서 보기 어려운 유기농 채소들이 재배되고 있다.

랭보는 인도에 사는 고소득 전문직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고급 요리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식가를 자처하는 이들은 신선한 유기농 채소와 질 좋은 고기를 맛보기 위해 비싼 가격도 마다하지 않는다. 인도에서 보통 닭 한 마리의 가격은 2달러 선이지만 방목해서 키운 닭의 가격은 3~4배 높다.

뉴델리의 컨설팅기업 테크노팍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도 내 고급 요리 시장의 규모는 13억 달러로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테크노팍은 인도에서 앞으로 5년간 올리브유 소비가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입 치즈와 파스타 판매도 연간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자상한 가장' 오바마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의류업체 '갭' 매장에서 버락 오바마(왼쪽) 대통령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옷을 고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갭 매장 나들이는 예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통한 자신의 강한 의욕을 내보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올린 바 있는 이 업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인 미셸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의 운동복을 샀다. /AP 연합뉴스

# "스마트폰·태블릿PC 1대당 40달러 내놔"

## 애플 2차 특허재판서 삼성에 요구…전문가 "정신나갔다"

"1대당 40달러(약 4만2000원)를 내놔라."

애플이 이달 말부터 미국에서 열릴 특허침해 손해배상 2차 재판에서 삼성전자에 이같이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친애플 성향을 보였던 IT 전문가마저 애플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 컨설턴트인 플로리안 뮐러는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통해 지난 1월 23일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Daubert motion) 심리 속기록을 공개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31일 시작될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한 데 따른 적정 로열티가 스마트폰·태블릿 PC 한 대당 40달러라고 주장할 전문가를 내세울 예정이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할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이다.

이에 대해 뮐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애플이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으로 애플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뮐러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스마트폰 가격을 폭등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뮐러는 그간 삼성의 특허 로열티 요구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지난해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자 "애플이 또 한 번 의미있는 승리를 거뒀고 (삼성을 향한) 올가미가 죄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

## "실종 말레이기 찾자"…추적 사이트에 60만명 몰려

위성사진을 뒤져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사진)를 찾자.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남중국해 상공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수색이 엿새째 난항을 겪자 이 같은 제안에 네티즌들의 클릭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글로브는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의 흔적 추적 웹사이트(www.tomnod.com)를 개설한 지 이틀 만에 60만 명이 몰려 사이트가 한때 다운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실종기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중국해와 태국만 인근 해역의 위성사진을 볼 수 있는 이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항공기의 파편이나 구명대, 기름 흔적을 비롯한 증거물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지역에 많은 표시가 찍히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10만 회 이상 사진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대중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에서 이 사이트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새로운 사진도 올려 사라진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 中 첫 회사채 부도 이어 상장사 채권거래 정지

중국 회사채 시장에서 첫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한 데 이어 중국 상장사의 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사례가 나왔다.

12일 상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인 바오딩 톈웨이바오볜 전기유한공사가 전날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연간보고서를 발표, 상하이증권거래소로부터 채권과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당했다.

이 기업은 2012년에 이어 지난해 52억3900만 위안(약 915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신에너지 부문의 손실과 거액의 자산가치 감소, 부채 확대 등으로 손실 규모가 커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상장사인 이 기업은 12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이에 따라 중국 증시에서는 7일 상하이의 태양광 업체 차오르 태양에너지 과학기술유한공사가 디폴트를 선언한 데 이어 연쇄 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중국 당국이 긴급 지원책 대신 기업의 자체 해결책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도 시장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조선미기자

# 와! 현관문이 얼굴 알아보네

## 범죄 막는 첨단기술 한자리 '세계 보안엑스포' 구경갈까

"엄마, 카메라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문이 열려요. 신기해요!"

12일 '세계 보안 엑스포2014'가 개최된 경기 고양 킨텍스의 전시관에서 한 초등학생이 얼굴인식 보안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감탄사를 쏟아냈다.

이 기술은 국내 바이오 인식 보안 솔루션 중소기업 파이브지티가 직접 개발한 얼굴인식 보안 시스템 'GTFR 5000'이다. 단말기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의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면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열쇠가 필요 없고 비밀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지문인식 장치가 지닌 접촉에 의한 위생 문제와 미인식 또는 인식 지연 등의 불편함이 없다. 놀라운 것은 0.1룩스 환경에서 쌍둥이를 구별할 수 있고 안경이나 가발 착용 유무도 판단한다는 점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적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어 부모가 외부에 있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집 안의 출입 여부나 자녀의 안전 귀가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자가 인증을 시도할 경우에는 얼굴을 촬영한 뒤 보관·전송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파이브지티 정규택 대표는 "얼굴은 분실 또는 복제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열쇠이자 완벽한 보안 수단이다. 얼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가정과 회사, 교육시설, 군시설 등에서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보안업체 에스원은 '안심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고령의 부모님과 따로 사는 고객에게 유용하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부모님이 전용 버튼을 누르면 에스원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가입자에게 확인시켜준다.

초등학생이 파이브지티의 얼굴인식 보안 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 /파이브지티 제공

14일까지 열리는 '세계 보안 엑스포 2014'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비롯한 정보 보호 솔루션과 영상 보안 시스템, 출입 통제 시스템 등 모든 보안 기기와 대테러 장비, 지능형 교통 안전 시스템 등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모든 솔루션을 전시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통합 보안 전문 전시회다.

총 8개국 350여개 기업이 약 700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에스원, ADT캡스, 파나소닉, 삼성테크윈, LG전자 등 국내 보안 분야 선두 기업과 글로벌 보안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박상훈기자 zxmm@metroseoul.co.kr

# IT도 인문학이다

(박상훈기자 zxmm@...)

## 영화 '300' 속편의 돌비 애트모스

2007년 사실적인 액션과 영상으로 남성들을 감동시켰던 영화 '300'의 후속작 '제국의 부활'이 최근 개봉했다.

워낙 재미있는 영화의 후속작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 투입된 최신 오디오 시스템이 더욱 흥미를 자극했다. 이름하여 '돌비 애트모스'. 쉽게 말하면 관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만 실제 촬영 현장에 있는 듯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다.

돌비 애트모스 솔루션이 장착된 영화를 전용 극장에서 볼 경우 어느 좌석에 앉더라도 동일한 퀄리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3D 영화가 입체적인 비주얼을 선사하듯 이 솔루션이 담긴 영화는 입체적인 느낌의 소리를 전달한다.

이 영화는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가 기원전 480년에 벌인 살라미스 해전과 이 전투 직전에 치른 아르테미시움 해전이 배경이다.

## 살라미스 해전의 노 젓는 소리마저 오장육부 휘젓네

이때만 해도 선박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배의 머리 쪽에 청동을 입히는 정도가 최신 군함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영화의 사운드를 살리는 요소가 됐다.

먼저 목선은 측면에서 중간 부분을 들이받으면 곧바로 가라앉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이런 전술이 자주 나온다. 이때 나무 부서지는 소리, 군인들이 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소리,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소리가 사실적으로 전해진다.

배 아랫부분에서 노예들이 촘촘하게 앉아서 노를 젓는 소리도 예외 없이 들린다. 무엇보다 에바 그린(아르테미시아)이 지휘하는 아르테미시움 해전에서의 화공전이 압권이다.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바람을 이용해 화공을 구사하는 고자원의 스킬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 군함이 불이 붙고 페르시아 선봉대의 거대 함선이 폭발할 때 생긴 굉음은 나의 오장육부를 뒤흔들었음이 분명하였다?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났다. '첨단 IT 오디오 기술 덕에 역사 책에서만 봤던 살라미스 해전을 경험한 것은 아닐까.'

시각과 음향이 완벽에 가깝게 현실을 담을 수 있다면 이미 그 자체가 타임머신이 아닐까.

# '한국판 크롬 캐스트' 250개 채널 무료 시청

**콩콩IT리뷰-에브리온TV 캐스트**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개발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구글이 발표한 '크롬캐스트'는 TV와 PC, 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HDTV의 HDMI 단자에 '크롬캐스트'라는 동글만 연결하면 일반 TV도 스마트 TV처럼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크롬캐스트'가 등장했다. 현대HCN과 판도라TV가 합작 설립한 N스크린 서비스업체 에브리온TV가 개발한 '에브리온TV 캐스트'가 바로 주인공이다.

에브리온TV 캐스트 모습

### N스크린 업계 최초 출시된 OTT 결합 미라캐스트 제품 폰 담긴 콘텐츠 TV로 즐겨

에브리온TV 캐스트는 N스크린 업계 최초로 출시된 OTT(Over The Top) 결합 미라캐스트 제품이다. 이 제품을 TV의 HDMI 단자에 연결하면 에브리온TV의 250개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라캐스트 기능이 지원돼 스마트폰에 담긴 동영상, 모바일게임 등의 콘텐츠를 TV의 큰 화면에서 즐길 수 있다.

이 조그만 에브리온TV 캐스트 하나를 휴대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종합편성채널부터 스포츠, 다큐, 영화 등 다양한 에브리온TV의 채널을 지역을 막론하고 시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라캐스트 기능은 스마트폰 성능과 고객 집의 인터넷 상태에 따라 영향이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보이지는 성능이 그대로 TV로 옮겨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을수록 TV에서도 보다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즐길 수 있었다.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적용 단말의 경우에만 미라캐스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이재영기자 ljy0403@

#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 예약 판매 시작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액션 RPG '디아블로 3'의 자기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의 소장판 및 일반판 패키지 버전 예약 구매가 13~21일 옥션에서 진행된다.

또 '디아블로 3: 영혼을 거두는 자' 출시 하루 전날인 3월 24일 서울 용산역 아이파크몰 내 이벤트 파크에서 공식 출시 행사를 연다.

'영혼을 거두는 자' 소장판 예약 구매는 총 4000개 수량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21일까지 옥션에서 진행되며 전 물량 소진 시 판매 종료될 예정이다.

소장판 예약 구매자는 24일 아이파크몰에서 열릴 출시 행사장 방문 수령(희망자 선착순 1000명)이나 택배 수령 중 배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출시 행사장 방문 수령자에게는 '영혼을 거두는 자' 공식 티셔츠가 증정된다. 또 출시 행사 현장 1, 2, 3호 수령자(당일 행사 현장 도착 기준)는 각각 LG컴퓨터(1호), BOSE 블루투스 스피커(2호), LG 파노라마 모니터(3호)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각 100번째 수령자(100번, 200번, 300~1000번까지)에게는 스틸시리즈의 디아블로 3 마우스 및 헤드셋을 증정하며 현장 추첨으로 디아블로 대형 피규어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일반판 패키지 버전 예약 구매의 경우 판매 수량 제한은 없으며 소장판과 마찬가지로 13일 오전 10시부터 21일까지 옥션에서 진행된다. /박상훈기자

# 63빌딩 '계단 갤러리' 감동 업

## 제1회 캠퍼스텐 아트축제 14~15일 '러브 업' 주제로 메트로신문 후원 속 열려

국내 최초로 63빌딩 계단을 활용한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소셜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대학생 매거진 '캠퍼스 텐'이 가나아트 갤러리와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와 함께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63빌딩의 1층부터 60층 계단(1251계단)과 17층 오피스 전체에서 '제1회 캠퍼스 텐 아트 페스티벌 @ 한화 63' 전시회를 연다.

메트로신문이 후원해 첫 회를 맞는 이번 전시는 예술에 열정을 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미술계를 이끌어나갈 신진 작가들을 지원 및 발굴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기획됐다.

전시는 먼저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맞춰 '러브 업'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며 63빌딩 계단을 오르면서 대학생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연인과 함께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유명 작가와 스타 작가들의 작품을 한번에 볼 수 있어 관심을 끈다. 1~17층 계단

제1회 캠퍼스텐 아트 페스티벌에 작가로 참여하는 가수 솔비(왼쪽)와 나얼이 자신의 출품작 옆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 /캠퍼스텐 제공

에는 캠퍼스 텐이 선정한 27명의 신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 '아트 존'이 구성되며 17층은 송은주 조장은·김민수·한효일·칠스장 아트놈·밴디 워홀 키스 해링·론 에런드 등 유명 아티스트 작품과 브랜드의 다양한 참여 공간으로 구성된 '오피스 갤러리', 18~60층은 '사랑'을 주제로 한 국내외 유명 작품이 전시되는 '러브 존(LOVE ZONE)'으로 구성된다.

17층과 18~60층에서의 전시 '러브 업'은 사랑의 다섯 단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시로 유명 작가들이 표현한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국내외 유명 작가와 더불어 특별히 이번 전시에 참여한 가수 솔비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또 가수 나얼이 캐릭터 조각가 노준과 함께한 2인전 '사람 가까이 더 가까이'가 특별 전시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소셜네트워크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츄파(CHUPAR)를 이용한 최초의 증강현실(AR) 전시로 꾸며진다. 츄파를 이용해 작품을 태깅하면 증강현실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AR 전시로 도슨트 없이 작가가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예술 작품과 3월의 빛나는 야경을 17층 오피스 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 @metroseoul.co.kr

## 작가와 관객 '증강현실'로 접속

### 앱 '츄파' 활용 첫 AR 전시

메트로신문이 캠퍼스 텐과 특별한 화이트데이를 선사합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대 무료신문 메트로신문은 소셜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대학생 매거진 '캠퍼스 텐'과 가나아트 갤러리·한화호텔 앤드 리조트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캠퍼스 텐 아트 페스티벌 @ 한화 63' 전시회를 공식 후원합니다.

이 전시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오전 10시~오후 10시) 국내 최초로 63빌딩의 1층부터 60층 계단과 17층 오피스 전체를 활용해 열리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소셜네트워크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츄파(CHUPAR)를 이용한 최초의 증강현실(AR) 전시로 작품을 태깅하면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도슨트 없이 작가가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아 친구·연인들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 방황하고 싶은 그대, 봄 숲길 한바퀴

## 서울 근교 걷기여행 코스

추위가 가고 봄이 오면서 봄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 봄 향기를 맡으며 여유롭게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명품 길을 소개한다.

**◆서울 도심 숲길 '안산 자락길'**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안산 자락길'은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만들어졌다. 메타세쿼이아, 아까시나무, 잣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흔들바위·너와집쉼터·북카페, 숲 속 무대 등에서는 다양한 즐거리와 즐길거리도 만날 수 있다.

또 인왕산·북한산·청와대가 한눈에 들어오고 독립공원, 서대문구청, 연희숲속쉼터, 홍제폭포 등과 길이 연결돼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부천 둘레길의 '향토 유적숲길'**

경기도 부천시 둘레길 1코스 '향토유적숲길'은 청동기 철기시대 유적지인 고강선사유적공원에서 시작되는 길로 봄에는 철쭉이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부천의 대표 산인 원미산 숲길을 따라 걸으며 진달래 동산의 아름다운 봄의 정연도 만끽할 수 있다. 더욱이 작골약수터와 한심약수터에서는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으며 부천무릉수목원도 관람할 수 있다.

**◆파주NFC 흙길로 새면 '살래길'**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인 파주NFC 인근에 있는 '살래길'은 부담 없이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다.

살래길이라는 이름은 몸의 한 부분을 가볍게 좌우로 흔드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살래살래'에서 따왔으며 그 이름대로 살래길은 구불구불 살래살래 함께 걷는 길을 의미한다. 길을 따라 전망대로 올라가면 파주의 관광 명소인 헤이리와 영어마을이 한눈에 들어오고 임진강이 한강으로 합류하는 곳인 검단사에서는 탁 트인 전망과 한강 위로 떨어지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옥산 테마 100리길 ▲춘천 실레이야기길 ▲충주성 천년여행길 등도 봄맞이를 마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걷기여행길 종합안내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계용기자 ...

## '그림책에 담은 제주전'

제주돌문화공원이 13일부터 한 달간 오백장군 갤러리에서 '그림책에 담은 제주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신화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주를 소재로 한 어린이 그림책에 실렸던 원화가 전시된다. 또 매주 주말 오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 1인극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덴마크 인포켓치즈 병동 나눔 행사** 동원F&B가 12일 오전 하이병원과 환자·고객들에게 치즈를 선물하는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열었다. 이날 동원F&B는 일산과 부천의 하이병원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찢어 먹는 간식용 스트링치즈인 '덴마크 인포켓치즈'를 나눠주며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했다. 김경호 일산하이병원장은 "치즈는 고칼슘 고단백 식품으로 척추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원F&B 제공

## 19일 노보텔 강남 웨딩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이 오는 19일 호텔 심포니 홀에서 '2014년 노보텔 강남이 제안하는 웨딩쇼'를 개최한다.

'당신만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웨딩쇼는 합리적인 예산으로 우아하고 격조 있는 예식을 치르고자 하는 현명한 예비 신랑·신부들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웨딩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참여해 웨딩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련되고 모던한 연회 분위기를 자아내는 샘플 상차림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 14학번 가볍게 '소니니' 한잔

<소주+버니니>

## 봄학기 술자리 즐기는 법

대학가가 개강하면서 술렁이고 있다. 3월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무분별한 술 공세로 본인의 주량을 넘어서 무턱대고 마신 술로 인사불성이 돼 선배에게 잘못 보였다거나, 선배가 주는 술에 '기스'를 외치며 선배의 눈총을 받는 신입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개강파티, OT 뒤풀이, 동아리 엠시 등에 참석해 괴로운 만큼 술 마시기가 아닌 즐겁게 술 마시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위기를 이끌어라**

유재석, 강호동과 같은 타고난 말주변과 위기 대처 능력이 없더라도 분위기를 이끌어 술은 적당히 마실 수 있다. 바로 장기자랑 타임이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의 유명 대사를 성대모사하거나 최신 가요를 모창하는 등 장기자랑에서 돋보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재주만 있다면 벌주를 없애주거나 대신 마셔주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여자 선배들에게는 '별'에서 온 그대의 도 매니저 만 자처하더라도 큰 인기를 끌 것이다. 단 너무 성대모사를 잘할 경우 기특해서 주는 상으로 술을 더 마실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부담없는 저도주를 즐겨라**

국내에서 저도주로 많이 찾는 주류는 맥주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패러다임이 맥주에서 스파클링 와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5% 내외의 부담 없는 알코올 도수와 간편하게 들고 마실 수 있는 작은 사이즈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인 버니니와 함께 소주를 믹스해 마시는 일명 '소니니'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 소주 외에도 보드카, 리큐어 등과 혼합해 새로운 칵테일로 즐길 수 있는 소주 칵테일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주와 저도주를 믹스해 마실 때 소주 등 특유의 알코올 향을 잡아줘 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술자리 게임을 지배하라**

첫 만남 후 어색한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이 바로 '술자리 게임'이다. 공공칠빵부터 타이머 게임에 이르기까지 술자리 게임은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같은 게임이더라도 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신 유행하는 술자리 게임은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술자리 게임은 지배하면 벌주를 면해 그날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정영일기자 [illegible]

# 그 맛, 사랑보다 달콤하데이

## 화이트데이 여심 겨냥 식음료업계 이색 메뉴

'발렌타인데이-초콜릿, 화이트데이-사탕'이라는 일반적인 기념일 선물 공식이 변하고 있다.

최근 유연포털 잡코리아와 대학생 매거진 캠퍼스 잡앤조이가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화이트데이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사탕은 8위에 머물렀다. 반면에 1위로는 키스, 2위는 핸드백, 3위는 손편지가 올랐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사탕보다 더 달콤한 아이템을 내세우며 여성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먼저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기념 한정 제품 출시가 인기다. 동서는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스위스 삼각 초콜릿 토블론 한정판 패키지 '마테호른 베어'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해당 제품의 마스코트 마테호른 베어와 토블론 밀크 50g 제품 2개, 화이트 50g 제품 2개로 구성됐으며 1만 개 한정으로 제작돼 편의점 CU 전국 매장에서 판매된다.

파리바게뜨는 클래식 패턴의 하트 모양 박스에 하트초콜릿 쿠키 등을 풍성하게 담은 '블라썸하트'를 비롯해 레트로풍 꽃 일러스트가 그려진 상자에 프레첼 초콜릿·쿠키 등으로 구성한 '시크릿 플로셋' 등의 특별 제품을 선보였다. 여기에 친구 직장 동료 등을 위한 선물로 '마이러브' '러브파우치' 등의 제품도 마련했다.

스무디 브랜드 잠바주스도 특별 메뉴로 '피넛 초콜릿 타워'를 출시했다. 달콤한 스무디 위에 초콜릿, 피넛버터, 바나나 등을 올렸으며 오는 14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해당 제품 구매 시 해피 포인트를 2배 적립하는 이벤트도 함께 벌인다.

화이트데이의 특별한 분위기를 위한 와인도 주목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파이 3.14와인' 특별 한정 프로모션을 오는 16일까지 벌인다. 파이와인 제품명 콘셉트에 맞춰 314병을 3만1400원에 편대백화점 및 주요 와인 숍에서 판매한다.

한국하겐다즈는 연인들을 위한 화이트데이 선물용 특별 레시피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특별 레시피는 특히 사랑하는 연인에게 정성이 깃든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은 남성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동굴·하늘·물 속 '핑크빛'

## 이색 프러포즈 장소 없을까

로맨틱한 화이트데이를 더 달달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연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한다.

먼저 서브원 곤지암리조트의 동굴 와인 레스토랑 라그로타는 14일 '라그로타 화이트데이 스페셜 디너코스'를 선보인다. 안심 꼬치구이, 생가리비와 왕새우를 메인으로 하는 7가지 요리가 제공되며 동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분위기와 은은한 조명, 10만 병의 와인 등이 분위기를 더한다.

프러포즈 명소로 유명한 63빌딩 레스토랑에서도 색다른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58층에 위치한 슈치쿠에서는 로맨틱하게 장식된 프라이빗 룸에서 낭만적인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고품격 일식 코스를 즐길 수 있으며 63빌딩 최고 전망을 자랑하는 59층 워킹온더클라우드(사진)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특별 코스요리를 메인으로 한 '화이트 스토리 위드 워킹온더클라우드'를 준비한다.

이와 함께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제주, 63씨월드는 14일부터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에 한해 메인 수조 앞에서 화려한 영상과 다이버가 물 속에서 커플들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펼쳐주는 프러포즈 패키지 '러브 인 아쿠아'를 진행하며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커플들의 궁합을 알려주는 '별우가! 커플궁합' 이벤트가 이어진다.

/정혜윤기자 [illegible]

홈플러스 4주동안 '반값 축제' 홈플러스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다음달 9일까지 4주간 전국 139개 전 점포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1만5000여 가지 주요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고객 사은 쇼핑 축제를 벌인다. /홈플러스 제공

# 토종 아이스크림 더해봉 '아이스빌' 가맹사업

국내 최초의 토종 아이스크림 회사인 더해봉이 자사 브랜드 '카페 아이스빌'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인다.

더해봉은 순수 국내 기술로 천연 재료를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웰빙 아이스크림 전문기업이다.

더해봉 '카페아이스빌'의 대표 제품은 요거트 젤라또 아이스크림으로 향료와 색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주력제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얼마전 모 종편 방송에서 화제가 됐던 티벳버섯(모균)으로 숙성한 요거트를 원재료로 사용해 기존 아이스크림과 비교해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 정계길 대표는 "천연 재료를 사용해 본사 이익은 적지만 오직 고객의 건강과 믿음을 생각하는 회사로 향후 기능성 바이오 식품을 이용한 후식 메뉴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때론 상쾌하게-
때론 유쾌하게-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FOXlife
CINEf
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E channel
SCREEN
DRAMAcube
CINEf
FX

# 청정 쌀로 빚은 '뽀얀' 에센스

### 네이처리퍼블릭 출시한 '효모발효 더 퍼스트…'

네이처리퍼블릭은 미백 기능성 인증 원액 에센스 '효모발효 더 퍼스트 에센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15도 용천동굴에서 보관해 신선한 청정 쌀을 미네랄이 풍부한 짜신 암반 수로 발효해 만들었다. 주성분인 효모 발효물은 누룩을 띄워 술을 빚는 전통 발효기법을 적용하고 체온과 동일한 36.5도에서 72시간 동안 숙성시켜 피부 구성 성분과 유사하다. 효모 발효로 유효 성분을 안정화해 피부 친화력이 우수하며 민감성 피부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에센스는 아침과 저녁 세안 후 모든 기초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는 원액 타입으로 피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의 침투력을 높여 칙칙해진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화이트닝 제품이다. 피부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 피부결 정돈, 피지 조절 등 10가지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준다. 라벤더의 캐모마일, 어성초 등 7가지 허브 추출물이 들어있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 있게 관리해준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효모발효 더 퍼스트 에센스 출시를 기념해 초록 멤버십 회원에 한해 이달 24일까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 제품과 함께 쓰면 피부 활성비를 높여줄 '효모발효 더퍼스트 에센셜 스킨'(100㎖)을 에센스 구매 고객 1명에게 선착순 증정한다.

/정혜민 기자 hjune0414@

# 어머! 돈 쓸 줄 아는 남잘세

### 실속·센스 모두 갖춰서 그녀가 두번 반할 선물

요즘 같은 불경기에 괜히 어설픈 선물을 준비했다간 돈 쓰고 욕먹기 십상이다. 가격 부담 없이 짜다로운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을 아이템, 평소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실속형 아이템이 젊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화이트데이가 코앞이지만 아직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남성들을 위해 실속과 센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커플 아이템을 소개한다.

**◆워킹데이트 위한 커플 신발**

컬러감이 강조된 신발은 대표적인 커플 아이템으로 들어 함께 있을 때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 코리아가 새롭게 선보인 워킹화 G1은 한층 더 화려해진 색상으로 눈길을 끈다. 8종의 다양한 색상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스타일이라도 잘 어울려 커플들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제격이라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 제품은 갑피에 무재봉 기법을 가미해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하고 안솔 아킷부분의 스폰지 적용 면적을 확대해 안정성과 쿠셔닝을 보강했다.

**◆개성과 스타일 뽐내려면 커플 백팩**

기하학적인 은염이 프린트된 패턴 백팩은 반복적인 무늬에서 오는 유니크함이 매력적이다.

특히 그래픽 효과를 내는 옵티컬 프린트나 호피 무늬(레오파드)와 지브라 패턴 등 애니멀 프린트도 감각 있는 커플들에게 최고의 아이템으로 꼽힌다. 패턴이 부담스러다면 단색 컬러의 스퀘어 가방을 이용해 커플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개성을 뽐내기에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둘만의 비밀스러운 약속, 커플 속옷**

커플 속옷은 남들 눈에 띄지 않고 둘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싶은 커플들에게 추천하는 아이템이다.

속옷 브랜드 예스(Yes)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필요한 커플을 위해 매직 커플 속옷 세트를 지난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출시했다. 이 속옷 세트는 섹시하면서도 발랄함이 돋보이는 지브라 패턴 디자인이 특징이다. 여성용 브래지어 컵 하단에는 고급스러운 레이스를 매치해 과감하면서도 귀여운 분위기를 더했다. 남성 팬티에는 블랙 컬러의 망사 소재와 빨간색 로고로 포인트를 줘 세련미는 물론 여성 제품과의 통일감을 한층 강조했다.

/김학철기자 kimc0104@metroseoul.co.kr

'연인의 날' 마다 속옷 매출 쑥쑥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은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기간 동안 속옷 판매율이 매년 15%씩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일 선물 구매 패턴은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전하는 밸런타인데이 기간에는 '커플 속옷' 판매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화이트데이 기간에는 '란제리' 단품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좋은사람들 제공

# 키스 부르는 메이크업 비결 '투명 피부'

### 화이트데이 화장 이렇게

달콤한 화이트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화이트데이 메이크업을 연출해보자.

피부 표현은 두꺼운 것보다는 잡티만 살짝 가리고 투명하게 연출하는 것이 좋다.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중 수분감이 있는 제품과 커버력이 좋은 제품 두 가지를 섞어 쓰면 커버력과 자연스러움이 동시에 표현 가능하다. 또 최근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쿠션 제품들을 사용하면 더 간편한 방법으로 파운데이션을 얇게 피부에 밀착시킬 수 있다.

사랑하는 연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싶다면 눈매는 또렷하게, 속눈썹은 풍부하게 표현하면 된다.

아이라인은 과하지 않게 그려야 청순하고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펜슬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속눈썹 사이 점막을 메우고 눈꼬리를 살짝 빼준다. 속눈썹은 뷰러를 사용해 컬을 주고 마스카라로 풍성하게 만든다.

립과 치크는 자신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파스텔톤 컬러를 선택해 생기있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illegible]

# '미쓰 수제 고로케' 신선한 맛 소문

### 식물성 기름, 당일 판매 가격 마저 저렴해 인기

새벽부터 환하게 불이 켜져있는 서울 은평구의 테이크아웃 고로케 전문점 '미쓰 수제 고로케' 이곳의 하루 시작은 5시부터다.

일반적인 고로케 전문점에서 빵이 나오는 시간은 점심 12시를 전후한 시간이지만 미쓰 고로케에서는 아침 8시경이면 빵이 나오기 시작한다.

특히 이곳은 "깨끗한 식물성 기름으로 오늘 만든 제품은 내일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칙으로 운영한다.

깔끔한 쇼케이스 안에 진열된 이 가게의 빵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하다.

가격도 저렴하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옛날고로케와 샐러드고로케를 비롯해 매운고로케, 단팥호두고로케, 치즈소세지고로케 등 고로케는 1500원이며 글레이즈, 찹쌀스틱, 초코링 등의 도넛은 1000원이다. 355㎖짜리 캔음료는 1000원이며 아메리카노는 2000원이다.

/정혜민 기자

# 간편식 인기 투표하면 돈가스 드려요

### 강강술래 페이스북 17일까지 경품 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오는 17일까지 봄맛이 나들이 간식 지원 이벤트를 연다.

페이스북 팬페이지(facebook.com/sullai)에 올라온 간식 이벤트에 '좋아요'를 누르고 강강술래 가정 간편식 중 가장 좋아하는 봄맛이 나들이 간식을 고른 후 그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돈가스를 증정한다. 또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30명을 추첨해 돈가스를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강강술래에서 제공하는 통등심돈가스는 100% 국내산 돼지의 등심 부위를 통째로 사용했고 생(生)빵가루를 입혀 정통 돈가스의 맛을 살렸다. 모짜렐라돈가스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100% 자연치즈를 사용해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두 제품 모두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1장의 무게가 180g으로 한 끼 식사 대용은 물론 반찬·영양간식·술안주로도 좋다.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통등심돈가스(720g×3팩)는 3만1500원, 모짜렐라돈가스(720g×3팩)는 3만7800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솔래양념구이(미국산 520g) 포장 상품도 50% 할인된 2만원에 선착순 판매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 강강술래 홈페이지에 신청글을 올리면 춘향전 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 뮤지컬 '미소' 티켓(1인 2매)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김학철기자

'별그대' 입상녀 열연 유인나

귀여운 목소리에 사랑스러운 얼굴까지. 누가 유인나를 보고 악역이 어울리는 여배우라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최근 유인나는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서 악역 유세미를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미움을 단단히 샀다. 촬영 전 "유인나의 사랑스러운 느낌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감독의 부탁에 그는 "처음에 악역에 적응되지 않았지만 많은 연구 끝에 세미를 연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탄생한 유세미는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유인나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김지민기자 kimkim@metroseoul.co.kr

# "악역 감정연기 몰입에 체력 바닥"

◆ 평소에는 거의 노메이크업

유인나는 드라마 종영과 동시에 케이블 채널 온스타일의 뷰티 정보 프로그램 '겟잇뷰티'의 새 MC로 발탁됐다. KBS 2FM '볼륨을 높여요' DJ에 이어 TV 쇼 진행자까지 맡으며 말 그대로 종횡무진하고 있다. 유인나는 "진짜 진짜 피곤하다"며 행복한 투정을 부렸다. 이어 "원래 체력이 좋은 편이라 몸이 힘들진 않았는데 감정 소모가 힘들다"며 "'별그대' 세미 역할이 특히 심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신이 이어져서 감정 소모가 많았다. 종영 후 갑자기 지쳐서 많이 피곤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뷰티 멘토로서 활약하게 될 유인나는 자신의 피부와 몸매 관리 비결을 휴식이라고 답했다. "편 쉬면 대신 자극받을 먹는다"며 "몸매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늘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소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 피부와 손톱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며 "라디오 DJ 초반 때는 화장하고 다녔다 결국 포기했다. 화장은 안 하고 다니니 그렇게 편할 수 없더라"고 덧붙였다.

◆ 단짝 아이유와 함께라면 든든해

겟잇뷰티 1대 MC 유진의 바통을 이어받은 유인나는 "부담되지만 유진 선배보다 나은 MC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유인나가 첫 녹화를 무사히 마칠 수 있던 배경에는 그의 단짝 가수 아이유가 있었다. 유인나는 "1회 게스트가 아이유였다"며 "처음 혼자서 녹화할 때는 얼어 있었는데 아이유가 오고 나니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미있게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인나와 아이유는 열한 살의 나이 차가 무색할 만큼 연예계 소문난 '절친'이다. 유인나는 "진짜 솔메이트가 이런 거구나 싶다"며 "아이유가 동생이지만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내가 가끔씩 그 친구한테 투정도 부리고 위로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래 언니 오늘 하루 잘 버텼다. 이제 자자' 하고 말해준다. 반대로 아이유가 힘들 땐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말했다.

◆ 노래요? 기회온다면 꼭

매일 밤 8시가 되면 라디오에선 유인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벌써 3년째 DJ로 맹활약 중인 유인나는 달콤한 목소리로 청취자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소리 예쁘단 말을 해주시는데 어릴 땐 오히려 콤플렉스였다. 얘기를 더 많이 들었다. 심지어 종종 놀림받기도 했다"며 "라디오 진행하고 나서부터 목소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참 좋다"고 말했다.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인나는 "하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다. 최근 몇 명 배우들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OST를 직접 부른 것에 대해 유인나는 "기회가 온다면 서슴지 않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업인 연기에 대해선 "당장은 신나고 발랄한 역할을 하고 싶다"며 "부정적 에너지와 긍정적 에너지는 크기가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쌓여있어서 이걸 쓸 수 있는 신나는 역할을 만나고 싶다"고 바람을 털어놨다.

작품 끝내고 '겟잇뷰티' MC
라디오 DJ로도 종횡무진중
달콤 목소리 한때 콤플렉스
이젠 발랄한 캐릭터 하고파

/김지민기자 kimkim@metroseoul.co.kr

사진/미스틱89 제공 /디자인 박은지

# "동안 유아인 첨엔 부담"

## '밀회' 김희애 "대본 재밌게 읽어"…스무살 차 로맨스 그린 드라마 '눈길'

JTBC의 새 월화극 '밀회'에서 배우 김희애와 유아인이 스무 살 나이 차를 뛰어넘는 로맨스를 선사한다.

김희애와 유아인은 12일 오후 아트홀에서 열린 '밀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스무 살 연상-연하 커플을 연기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김희애는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배우가 아닌 독자가 돼 마지막 장까지 아껴가며 재밌게 읽었다"며 "유아인이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서 함께 카메라 앞에 선다는 사실이 처음엔 부담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스물아홉 살인 유아인은 "저보다 어린 역을 맡아 기분 좋았지만 나 역시도 스무 살 역할이 부담스러웠다"며 "미 작품 놓치지 않을꺼예요"라고 김희애의 CF 대사를 패러디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연출을 맡은 안판석 PD는 "서로 동년배 집단을 만났지만 이주 연공은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며 "남의 시선만 신경 쓰고 계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첫 방송되는 '밀회'는 예술재단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며 클래식 음악계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오혜원(김희애)이 가진 것 없이 피아노 하나만을 사랑하는 스무 살 연하의 천재 피아니스트 이선재(유아인)를 만나 나이 차와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며 사랑에 빠지는 멜로 드라마다.

12일 서울 서소문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JTBC 새 월화드라마 '밀회'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박혁권, 김희애, 유아인(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김지민기자 fans@metroseoul.co.kr

# '신 스틸러' 조진웅·강성진

## '태양은 가득히'서 묵직한 존재감 드러내

배우 조진웅(왼쪽 사진)과 강성진(오른쪽)이 '신 스틸러'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KBS2 월화극 '태양은 가득히'에서 노련한 사기꾼 박강재를 열연 중인 조진웅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세로(윤계상)의 복수를 도와주는 속 깊은 인물을 그리고 있다.

복수심에 불타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세로에게는 현실을 직시시키는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고 짝사랑하는 재인(김유리)의 앞에선 부드러운 남자를 연기하는 등 캐릭터의 이중 모습을 눈빛과 말투에 고스란히 녹여 회를 거듭할수록 호평을 받고 있다.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이하 '신의 선물')에서는 살인범이 강성진으로 드러나 시청자에게 반전을 선사했다.

강성진은 그동안 장애인직업전문학교 천사표 선생님으로 등장했지만 11일 방송에선 살인마의 눈빛 연기를 선보여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4회 출연만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는 신 스틸러의 정석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강성진은 '신의 선물' 에 특별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김수현(이보영)의 딸 샛별(김유빈)을 죽인 범인이 따로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효진기자

FT아일랜드, 씨엔블루, AOA, 송은이, 주니엘, 한성호 FNC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12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 E&M 제공

# '스타가 되는 길' 내딛은 엔플라잉

### 프로그램 주인공 등장

신인 밴드 엔플라잉(김재현·권광진·이승협·차훈)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다.

엔플라잉은 13일 첫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tvN '청담동 111 엔플라잉 스타가 되는 길'을 통해 데뷔와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에 그룹 씨엔블루·FT아일랜드·AOA를 배출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이 한 곳에 모였다. 엔플라잉의 데뷔와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vN '청담동 111' 기자간담회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12일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엔플라잉은 강렬한 록 사운드의 래핑이 돋보인 '기억해'와 '바스켓'을 연달아 부르며 분위기를 달궜다.

씨엔블루의 멤버 강민혁은 "엔플라잉은 장난기가 많다. 그 끼로 무대에서 좌중을 압도할 것이다"라고 후배 밴드를 소개했다.

씨엔블루로 데뷔할 뻔한 베이스 권광진은 "음악적 취향이 달라서 이뤄진 결정이다. 엔플라잉으로 데뷔하기까지 음악 공부와 연습을 많이 했다"고 엔플라잉에 합류한 소감을 전했다.

AOA는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멤버로 드럼 김재현을 꼽았다. 김재현은 그룹 레인보우의 멤버 김재경의 동생으로 "누나가 응원하고 있다. 누나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데뷔 후 방송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다. 기대해달라"고 관련 질문에 재치 있게 답했다.

한성호 FNC 대표는 "음반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슈가 돼야 음악을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청담동111'을 통해 엔플라잉이 대중과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밝혔다.

'청담동 111'은 FNC엔터테인먼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담은 연예기획사 리얼 드라마로 이달 13일 첫방송 된다. /전효진기자 jeonhj@

# 20년만에 토크쇼 MC로 돌아온 염정아

## '트루 라이브쇼' 진행 맡아

배우 염정아(사진)가 20년 만에 토크쇼 MC로 돌아왔다.

다음달 3일 첫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스토리온 새 프로그램 '트루 라이브쇼'의 MC를 맡아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트루 라이브쇼'는 유명 인사의 사적인 공간과 스튜디오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공개하는 토크쇼다. 약 20년 만에 MC에 도전한 염정아는 성숙하고 여유 있는 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천원두 펑키 밴드 디핌스의 김태현, 잡지 아레나의 이우성 피처 에디터 등이 염정아와 함께 '트루 라이브쇼'를 이끌어간다.

스타들의 현장을 생중계할 리포터는 프랑스 청년 피비앙과 개그우먼 박소영으로 낙점됐다.

이원형 CJ E&M CP는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의 삶을 보다 감각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토크쇼"라며 "진정성 있는 만남과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원기자

# 박희본 단막극 주인공 송종호·홍종현과 호흡

배우 박희본(사진)이 KBS2 'KBS 드라마스페셜 단막 2014'의 '내가 결혼하는 이유' 편에서 여주인공을 맡아 홍종현과 송종호 사이에서 행복한 갈등을 한다.

'KBS 드라마스페셜 단막 2014'의 일곱 번째 작품인 이 드라마는 오래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둔 한 여자가 과거 짝사랑한 남자와 재회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여주인공인 예비 신부 지원 역에 박희본, 예비 신랑 승욱 역에 송종호, 그리고 지원을 흔들어놓는 과거의 짝사랑 남자 준기 역에 홍종현이 캐스팅됐다.

지원은 솔직 담백한 성격의 소유자로 승욱과의 결혼 준비에 힘들어하던 중 준기를 만나며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인물이다.

한편 이 드라마는 23일 오후 11시55분 방송된다. /유순호기자 yus@

# "폰 사진 숨길 이유 없다"

### 박유천 측 수사요청…지인 휴대전화 주워 1억 요구한 협박범 구속

그룹 JYJ 멤버 박유천(사진)이 휴대전화 협박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께 서울 학동로 근처에서 박유천 지인의 휴대전화를 주워 박유천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박유천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김씨가 지난달 말 자신이 습득한 박유천 지인의 휴대전화개인정보를 멋대로 추출해 휴대전화 속에 있는 박유천을 발견했다. 그 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며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는 습득한 분실물 개인정보를 수단으로 도용한 점이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휴대전화 사진이나 내용은 숨길 이유가 없어 수사기관에 바로 협조 요청을 했다. 김씨가 요구한 금액이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이었기에 바로 구속돼 검찰 송치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소속사는 "박유천은 휴대전화의 소유자도 아니고 이 사건과 무관하며 당시 촬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허위 내용을 근거로 하는 기사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가 있는 경우 특히 소속 배우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유천은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에 출연 중이다.

/장선을기자 

들스타 성룡이 제작한 5인조 아이돌그룹 JJCC의 멤버 심바·이코·에디·신원·프린스 박.

## 노래 짱 외모 짱… 짱짱한 JJCC

### 남성 5인조 멤버 공개

월드스타 성룡이 제작한 남성 5인조 아이돌 그룹 JJCC(더블JC·사진)의 다섯 멤버가 공개됐다.

더블JC는 K-팝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성룡이 극비리에 준비해온 아이돌 프로젝트다. 12일 공개된 멤버는 리더 심바·이코·에디·신원 등 4명의 한국인 멤버와 호주 국적의 중국인 멤버 프린스 박이다.

20대 초반의 다섯 멤버로 구성된 더블JC는 수려한 외모를 갖추고 있다. 심바는 부드러움과 마초적 남성미가 동시에 느껴지고, 이코는 186cm의 수려한 비율을 자랑한다. 랩을 담당하는 심바와 이코는 국내외 유명 런웨이를 활보한 모델 출신이다. 에디는 3옥타브를 넘나드는 보컬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서바이벌 요리 오디션 '마스터셰프 코리아'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막내 신원은 앳되 보이는 외모와 달리 반항아적 기질이 엿보이는 귀여운 악동을 연상케 한다. 중국인 멤버 프린스 박은 중국 유명 음악 서바이벌 오디션 1위 출신으로 성룡의 눈에 띄어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한편 더블JC는 이달 중 공식 데뷔 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성현기자

## 포미닛 5인5색 '파자마 패션' 눈길끄네

걸그룹 포미닛이 색다른 파자마 패션을 선보였다.

12일 소속사 측은 포미닛의 새 앨범 타이틀곡 '오늘 뭐해'의 콘셉트를 살려서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한 '포미닛 다이어리' 릴레이 화보 세 번째 '파자마 파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편안한 파자마 복장을 입은 포미닛 멤버들 각각의 개성이 묻어난다. 평소 무대 위 카리스마 넘치는 포미닛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다.

남지현은 핑크 레드 도트가 돋보이는 원피스를, 허가윤은 아기자기한 패턴이 들어간 드레스 파자마를 선택했다. 전지윤은 긴 상의와 반바지 조합의 파자마를, 현아는 패턴이 들어간 파자마를 입었다. 마지막으로 권소현은 핑크색 블라우스와 양머리로 깜찍한 귀여움을 선보였다.

한편 포미닛은 5집 앨범 '포미닛 월드'로 17일 컴백한다. /정성현기자

## 정준영 붉은악마 응원가 불러

가수 정준영(사진)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서포터스 붉은악마의 공식 응원가 앨범 '위 아 더 레드'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정준영은 12일 소울다이브와 함께 부른 공식 응원가 '올웨이즈 레드'를 발표했다. 이번 곡은 강렬한 기타 사운드를 기반으로 정준영의 보컬과 소울다이브의 시원시원한 랩이 조화를 이룬 노래다. 마치 경기장의 함성 소리를 듣는 듯 열정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총 9개의 곡이 수록된 '위 아 더 레드'에는 정준영과 소울다이브의 조합처럼 색다른 콜라보레이션들을 만나볼 수 있다. 에일리·다이나믹 듀오·AOA·트랜스픽션&걸스데이 민아·타이니지·카피&윤형빈·서두원·브로큰발렌타인 등 인디밴드에서부터 걸그룹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콜라보레이션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장선을기자

## 투하트 앨범 하루만에 10만장

### '더 퍼스트' 판매 1위 올라 오늘부터 음악 방송 활동

콜라보레이션 듀오 투하트(사진)가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투하트는 '더 퍼스트' 미니 앨범을 발매한 10일에 앨범 10만장을 판매하며 음반 판매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 순위 1위에 올랐다. 또 발매 이튿째인 11일 현재도 이 차트 1위를 지키며 인기를 입증했다.

투하트의 우현과 키는 각각 인피니트와 샤이니의 멤버로서 그룹 활동 당시 음반 판매 강세를 보여왔다. 이에 두 음반 강자가 모여 이룬 투하트 앨범 판매량에 대해 기대가 모이고 있다.

투하트는 음원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타이틀곡 '딜리셔스'는 음원 사이트 벅스·소리바다 등에서 1위에 등극했으며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이들의 새 앨범은 1980년대 빈티지 스타일을 우현과 키의 언밸런스하고 세련된 매력으로 재해석해냈으며 두 보컬의 색다른 어우러짐이 돋보인다. 타이틀곡 '딜리셔스' 외 총 6곡이 수록됐다.

투하트는 13일부터 본격적인 음악 방송 활동에 나선다.

/장선을기자

그룹 인피니트의 우현(왼쪽)과 샤이니의 키가 손잡은 콜라보레이션 듀오 투하트.

# 한류 지도, 닫힌 일본에서 열린 중국으로

## '대세남' 김수현 필두 이상엽·엑소 등 현지 활발한 활동

한류 열풍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수 장나라와 배우 장서희·추자현이 중국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세남' 김수현을 비롯해 가수 비와 배우 이상엽 등이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 내 한류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시장 겨냥한 끊임없는 도전**

중국 내 한류 열풍은 스타들과 연예계 관계자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한류 열풍 초기 장나라와 추자현, 채림 등이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발판을 다져왔다. 덕분에 현재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상엽이 중국 영화계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이상엽의 첫 중국 영화 도전작인 '전임공략'이 지난달 중국에서 개봉해 춘절 연휴을 1위, 박스오피스 2위를 지키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 가수 비(정지훈)도 중국 내 한류 열풍에 불을 지핀다. 비는 중국 영화 '호안로수'의 주연으로 캐스팅돼 11일 촬영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중국 대표 여배우 유역비와 연기 호흡을 맞춰 중국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에프엑스 빅토리아는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본국인 중국에서 배우로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요계 차이나 시장 돌풍**

아이돌 그룹 엑소의 비스트, 소녀시대 등 국내 가수들이 중국 팬들의 지지를 받으며 활약 중이다. 특히 엑소는 정규 1집 앨범 'XOXO'로 12년 만에 앨범 판매 100만 장 돌파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다. 그 중심에는 중국 팬들이 있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중국 팬들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구입한 영수증으로 자신의 팬임을 증명하는 문화가 있다"며 "엑소의 경우도 중국 팬들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형 기획사 SM을 비롯해 YG, JYP, FNC 등은 중국 진출을 필수로 보고 있다. 중국 시장의 선두 주자 SM은 슈퍼주니어 중국인 멤버 한경을 포함해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다. 엑소는 중국인 멤버들로 이뤄진 엑소 M을 만들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JYP는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미쓰에이를 필두로 중국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진출을 선언한 YG도 베이징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FNC도 최근 중국지사를 설립한 상태다.

배우 이상엽(왼쪽)과 비가 중국 영화에 출연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엑소(오른쪽)는 중국 가요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수현, 열풍 넘어 돌풍으로**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를 통한 김수현의 신드롬은 그야말로 뜨겁다. '별그대'가 중국에서 인기를 모으면서 주연배우 김수현의 몸값도 수직 상승했다. 그의 경제 효과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김수현이 올해 들어 자신의 몸값과 소속사 주가 견인 등으로 1000억원의 효과를 낸 것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경제 효과도 가능하다.

김수현의 몸값은 CF에서 확인된다. 김수현은 '별그대' 캐스팅 당시만 해도 국내 인기에 비해 한류 영향력이 약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드라마 한 편으로 모든 게 바뀌었다. 중국에서의 '별그대' 인기로 30여 개 제품에서 CF 출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이 중에서 골라 10편 정도 출연할 계획이다. 중국 CF 출연료는 8억원 선을 넘어선다. 국내 CF 출연료도 1년 전속계약에 5억~6억원 선에서 최소 8억원으로 급상승했다.

이외에도 상속자들의 이민호와 김우빈 등이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성현기자 ysw@metroseoul.co.kr

---

## 봉준호·최동훈 이을 차세대 감독은…

### 'KAFA 필름' 세편 공개

봉준호·김태용·최동훈·민규동·장준환 등을 배출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이들의 뒤를 이을 미래의 거장 감독들의 탄생을 알렸다.

12일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 카파 필름즈 2014 미디어데이에서는 KAFA장편제작연구과정을 통해 완성된 세 편의 영화가 공개됐다.

김정훈 감독의 '들개'(4월 3일 개봉)는 사제 폭탄을 만드는 정구(변요한)와 그를 대신해 폭탄을 터뜨려 줄 집행자 효민(박정민)의 만남을 그렸다. 지난해 도쿄국제영화제 아시아의 미래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유원상 감독의 '보호자'(4월 10일 개봉)는 납치당한 자신의 아이를 구하려면 또 다른 아이를 납치해야 하는 전모(김수현)의 이야기를 그려 인간의 모순적인 심리와 윤리 문제를 담았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 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에서 공개됐다.

12일 카파 필름즈 2014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영화 '이쁜 것들이 되어라'의 배우 정겨운, 한승훈 감독, 배우 윤승아(왼쪽부터). /연합뉴스

한승훈 감독의 '이쁜 것들이 되어라'(4월 17일 개봉)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0년째 고시생 신세인 정도(정겨운) 앞에 어린 시절 아버지의 두 집 살림으로 인해 남매가 될 뻔했던 경화(윤승아)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 자리에는 '들개'의 김정훈 감독과 배우 변요한·박정민, '보호자'의 유원상 감독과 배우 고서희·이준혁, '이쁜 것들이 되어라'의 한승훈 감독과 정겨운·윤승아가 참석해 영화를 소개했다. /박전영기자

---

### 전주 촬영 정우성 목격담 화제

배우 정우성(사진)이 전주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이 소식에 전주영상위원회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정우성이 영화 '마담 뺑덕'을 전주에서 촬영하고 있다"면서 "촬영을 할 때는 조용히 협조해달라"고 현장을 찾는 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마담 뺑덕'은 고전 '심청전'을 치정 멜로극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정우성은 치명적 매력을 가진 채 위험한 사랑에 빠지는 대학교수 학규 역을 연기한다. /전효진기자 @cnbntt

---

## '트랜스포머4' 6월 관객 만난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신작인 '트랜스포머4: 사라진 시대'(이하 '트랜스포머4'·사진)가 6월 국내 관객과 만난다.

배급사 CJ E&M은 '트랜스포머4'의 국내 개봉일을 6월 26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보다 하루 빠른 개봉이다.

3편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시카고를 무대로 펼쳐졌던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마지막 전쟁 이후 뒤의 이야기를 그렸다. 3편까지 극을 이끌었던 샤이아 러버프가 하차하고 마크 월버그와 니콜라 펠츠, 잭 레이너가 새로 합류했다.

이번에 공개된 1차 예고편은 '시카고 사태를 기억하라'는 첫 말에 이어 고물 트럭을 사들이는 케이드(마크 월버그)의 모습으로 시작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전편보다 강력해진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 공룡을 연상시키는 다이노봇 등 다양해진 로봇들의 등장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세 편이 개봉돼 총 2244만 관객을 동원했다. 2007년 '트랜스포머'는 740만 명, 2009년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으로 750만 명, 2011년 '트랜스포머 3'로 778만 명을 모았다. /박전영기자 tuff0427@

---

## 김희선, 성룡 자선공연 초청받아

배우 김희선(사진)과 아이돌 그룹 엑소가 성룡의 자선 공연에 초청됐다.

홍보사 스프링은 12일 "김희선과 엑소가 다음달 6일 중국 베이징 공인체육관에서 '2014 평화, 사랑 그리고 우정'이라는 주제로 열릴 자선 공연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중국 가수 겸 배우 종주멍이 아버지인 성룡을 위해 직접 기획한 것이다. 전 세계 각지의 팬들과 해외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콘서트와 팬미팅, 상하이 성룡 영화예술관' 개막 등 다양한 축하 이벤트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룡과 영화 '신화'를 함께 찍은 김희선은 그와의 오랜 친분으로 이번 공연에 참석하게 됐다. 당시 성룡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듀엣으로 불러 중국 내에서 유명해 가수로서 정식 초청을 받았다. 현재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 촬영으로 바쁜 관계로 공연만 참석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엑소는 중국 내에서 K-팝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데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과 성룡과의 오랜 우정으로 참석하게 됐다.

이번 무대에는 성룡이 키운 K팝 신인 아이돌 그룹 JJCC(제이제이씨)도 초청받았다. /박전영기자

# 유준수-김신욱 '두 방'

## 울산, 가와사키에 2-0 승…'이동국 두 골' 전북, 멜버른과 비겨

울산 현대가 아시아 최강 클럽을 가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고 조1위를 지켰다.

울산은 12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H조 2차전 경기에서 일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후반 막판 터진 유준수와 김신욱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이로써 울산은 웨스턴시드니 원더러스(호주)와의 1차전에 이어 2연승을 거두며 승점 6으로 선두를 지켰다.

울산은 경기 초반 하피냐와 고창현의 슈팅이 골대를 빗겨가는 등 고전하며 전반을 0-0으로 마쳤다. 후반 6분에도 하피냐의 슛이 크로스바를 맞았다.

가와사키도 지난 시즌 J리그 득점왕 오쿠보 요시토를 중심으로 득점 기회를 노렸지만 김승규의 선방에 막혔다.

그러나 후반 40분 울산은 지난 시즌까지 실업축구에서 뛰던 유준수가 선제결승골을 터뜨려 승리를 예감했고 경기 종료 직전 김신욱이 쐐기골을 터뜨렸다.

같은 날 전북 현대는 호주 멜버른의 도크랜즈 스타디움에서 멜버른 빅토리와 접전 끝에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신욱이 12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일본 가와사키와의 경기에서 두번째 쐐기골을 넣은 뒤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반 30분 나폴리스 인성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북이 1-0으로 뒤진 상황에서 '해결사' 이동국이 동점골을 터뜨린데 이어 다시 3분 만에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역전골까지 뽑아냈다. 가뜩도 잠시 후반 35분 멜버른의 코스타 바바로시스가 전북 골키퍼 최은성의 가랑이 사이로 동점골을 넣었다.

G조의 약체로 꼽힌 멜버른을 상대로 승점 1을 따내는 데 그친 전북은 조별리그 1승1무(승점4 골득실 +3)를 기록해 이날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와 무승부에 그친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승점4 골득실 +2)에 골득실에서 앞서 1위를 유지했다.

/하희철기자 ta0427@metroseoul.co.kr

### ACL 조별리그 전적 (12일)

| | | | |
|---|---|---|---|
| 전북 | 2 | 2 | 멜버른 |
| 울산 | 2 | 0 | 가와사키 |

# 흠런 한방 맞았지만 임창용 "구위 괜찮아"

### 시범경기 등판 2실점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노리는 임창용(38·시카고 컵스·사진)이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서 첫 홈런을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삼진도 두 개나 잡아내 구위는 나쁘지 않았다.

임창용은 12일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의 컵스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시범경기에서 1이닝 동안 안타 1개(홈런), 볼넷 1개를 내줘 2실점했다. 임창용은 9회 브라이언 슈리터에게 마운드를 넘기며 이날 등판을 마무리했다. 홈런 탓에 평균 자책점은 9.00으로 치솟았다. 컵스는 투타의 부진으로 콜로라도에 0-13으로 대패했다.

한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는 왼팔꿈치 통증으로 3경기 연속 결장했다.

상태가 좋아 13일 LA 에인절스전부터는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는 "겨우내 쉰 뒤 볼을 다시 던지기 시작하면 수축됐던 근육이 늘어나 염증이 생기곤 한다"며 "굳이 경기에 나서 이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다"며 상태가 심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장성훈기자

# KT, 전자랜드 꺾고 6강 PO '첫 승'

부산 KT가 인천 전자랜드를 꺾고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5전3승제) 첫 경기에서 승리했다.

KT는 12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전자랜드와의 1차전 경기에서 69-67로 승리를 거뒀다.

KT는 이날 승리로 4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동안 34차례의 6강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4강에 진출한 것이 32번으로 94.1%나 된다.

이날 경기에선 KT의 집중력이 빛났다. 팀 리바운드 숫자에서도 34-26으로 KT가 크게 앞섰다.

후안 파틸로(23득점 9리바운드), 조성민(14득점 3리바운드)이 맹활약했고, 김우람은 결승 3점슛을 포함해 10득점 4리바운드의 활약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주전들의 고른 활약 속에 2쿼터 한때 36-20으로 여유있게 앞서가던 KT는 전자랜드의 후반 반격에 밀리기 시작했다.

특히 전자랜드는 주장 리카르도 포웰이 4쿼터 팀 득점 11점을 혼자 책임지는 등 더블-더블(32득점 10리바운드)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막판 KT의 외곽에 무릎을 꿇었다.

KT는 4쿼터 역전을 당하자 조성민의 3점슛에 이어 김우람이 종료 1분4초를 남기고 재역전 결승 3점슛을 터뜨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혜빈기자 lhb0346

### 프로농구 전적 (12일)

| | | | | | |
|---|---|---|---|---|---|
| 전자랜드 | 14 | 16 | 26 | 11 | 67 |
| KT | 23 | 19 | 17 | 10 | 69 |
| 삼성생명 | 27 | 14 | 17 | 18 | 76 |
| 국민은행 | 17 | 23 | 15 | 11 | 70 |

### 프로배구 전적 (12일)

| | | | |
|---|---|---|---|
| 현대건설 | 3 | 1 | GS칼텍스 |
| 한국전력 | 3 | 2 | 우리카드 |

웃고 있는 '여제와 여신' 피겨 여왕 김연아(오른쪽)와 '빙속 여제' 이상화가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뒤 수상 소감을 밝히던 중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 김연아·이상화 최우수선수상

###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

'피겨 여왕' 김연아(24)와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가 제19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최우수선수상을 공동 수상했다.

김연아와 이상화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소치올림픽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나란히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연아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판정 논란 속에 아쉬운 은메달에 그쳤으나 은퇴하기까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권에 입상하는 '올포디움'을 달성하며 세계 피겨 100년사를 다시 썼다. 이외에도 18년간의 선수 시절 역대 최고점(228.56점) 기록을 새로 쓰고 여성 스포츠인 최초로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에 선정됐으며 평창올림픽의 유치에도 공헌하는 등 한국 스포츠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이상화는 소치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역대 세 번째로 이 종목 2연패를 달성했다. 이상화는 지난해 네 차례나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여자 단거리에서 범접할 수 없는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우수 선수로는 소치올림픽 2관왕인 여자 쇼트트랙 간판 박승희(22·화성시청)가, 신인상 수상자로는 최재우(모굴스키)와 심석희(쇼트트랙)가 선정됐다.

/정성훈기자 ssw@

# 세계여자아마랭킹 1위 이민지 나비스코 출격

골프 아마추어 이민지(18·사진)와 오수현(1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12일 호주 국가대표인 이민지와 오수현을 포함한 9명의 아마추어 출전자 명단을 발표했다.

세계여자아마추어랭킹 1위인 이민지는 4년째 호주 아마추어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올 시즌 호주여자프로골프투어 빅토리안오픈에서 프로무대 첫 승을 거뒀고 지난달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볼빅 RACV 마스터스에서는 준우승, 미션힐스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4위에 오르는 등 프로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오수현은 세계여자아마추어랭킹 5위에 올라있다. /장성훈기자